로컬플러스

정읍시보건소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 캠페인

정읍시보건소는 제29회 세계에이즈의 날(매년 12월 1일)을 맞아 KTX 정읍역과 시내 일원에서 정읍 방문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12월 1일,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깨지는 날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바른 정보를 알리는 한편 에이즈 바로 알기 범시민운동도 전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에이즈는 감염 경로의 97%가 성 접촉이다. 감염인이 사용한 주사기 공동 사용,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 수혈, 감염된 여성의 임신, 출산, 모유 수유 등으로 감염된다. 따라서 성접촉을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감염 초기에 감기와 몸살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남으로 증상만으로는 에이즈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감염될 만한 의심행위를 했다면 '12주 후'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는 모든 병·의원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보건소에서는 무료 익명검사를 실시하며, 콘돔을 무료 배포한다.

보건소는 "에이즈는 개인별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이다"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기업대표자 간담회 가져

정읍시가 5일과 6일 지역 내 기업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알리기 위해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주관한 이 자리에는 김생기시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과 고용 인원 50여명 이상인 25개 업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위기 탈출과 기업 발전 방안, 기업 애로사항 등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건의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이날 기업인들은 내수 위축 등으로 대 내?외적인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기업의 운영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업 주변 기반시설(교통여건, 환경 등) 개선 및 확충 등 좀 더 현실적이고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 지원 시책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모두가 좋아요"

김제시는 복권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 80세대를 선정하여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종료 후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만족도 조사는 지난 상반기 조사와 같이 세대주 현황, 주거형태, 시공 만족도, 주거환경 개선 만족도, 기타의견 등 총 3개 분야 10개 항목을 설문 조사했다.

만족도 조사결과, 공사 완료 후 "주거환경 개선"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56명-70%) '만족한다(24명-30%)'으로 불만족은 단 한명도 없어 '만족한다'는 의견으로 저소득 주민의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6년간 665가구(19억2천500만원)를 사업완료하였고, 올해 80세대(3억2천만원)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7년 새해에는 136세대를 대상으로 5억4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 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농산시책 '최우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평가… 백색·녹색혁명 정책 호평

김제시는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6년 농산시책추진 지자체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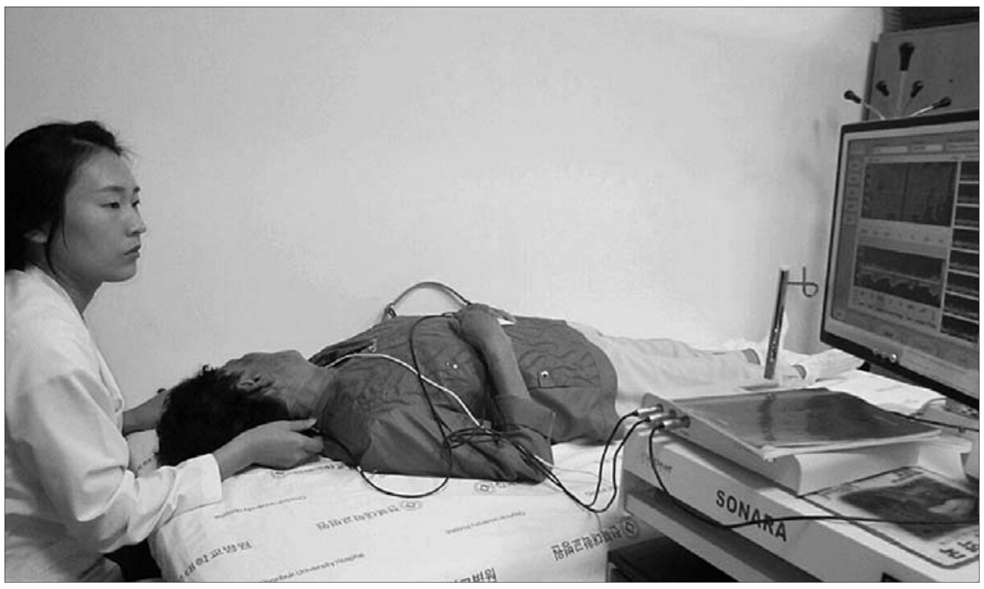
농산시책추진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기초단체의 식량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시책 및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김제시는 쌀 안정생산 확보를 위한 논 타작물 전환실적과 답리작 활성화 추진, 지력증진, 재해보험가입 등 노력의 적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이건식 김제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연간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2,000호 육성과 농업총생산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부강한 농촌·농업생명수도 김제 농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성과로는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을 주도해 농지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백색혁명의 일환으로 논에 비닐하우스 감자 410ha를 재배하여 180억원 소득을 올리는 한편 ICT결합 첨단 농업구축 자동화 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 팜 시설비 1,500억원 지원 함으로써 고품질의 우수한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녹색혁명의 일환으로 2007년 전국 최초 한우특구를 지정받아 2,387억을 투입해 지평선 한우 사육단지 조성과 조사료 재배사업 확대로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와 청보리, IR 등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한우를 생산, 한우 한 마리 천만원을 넘는 성과는 지평선청보리한우만의 고급육 사양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사육하여 녹색혁명의 좋은 결실이 맺어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올해 폭염과 가뭄 등 기상이변에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생한 직원들과 농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일괄된 신념을 가지고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첨단농업을 육성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살고 싶은 명품도시 김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보건소는 뇌졸중 판정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중 만성질환 미진단자를 대상으로 총 17명을 선정해 신경과 진료, 혈액검사, 심전도, 뇌CT, 신경 인지검사, 혈관경화도 및 뇌 혈류검사 등 8종의 신경과 검사를 실시했다.

부안군 만성노인성질환 조기검진 사업 성료

65세 이상 취약계층 17명 신경과 검사 8종 실시… 검진비는 전북대병원이 전액 부담

부안군보건소(보건소장 김달천)는 전북대학병원 신경과(책임교수 신병수)에서 2016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노인성 질환을 조기검진 및 보건의료인 교육사업'공모에 선정돼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치매, 뇌졸중, 어지럼증, 말초신경질환 등의 위험인자를 전북대학병원 신경과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고 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한 사업이며 사전·사후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사업도 함께 실시됐다.

이에 따라 부안군 보건소는 뇌졸중 판정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중 만성질환 미진단자를 대상으로 총 17명을 선정해 신경과 진료, 혈액검사, 심전도, 뇌CT, 신경 인지검사, 혈관경화도 및 뇌 혈류검사 등 8종의 신경과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뇌 전산단층검사 5명, 신경 인지기능 15명, 경두개초음파 3명 등의 이상소견을 발견해 2차 검사 의뢰해 신경계질환 조기 발견에 성과를 거두어 1인당 60만 원 상당의 검진비는 전북대병원이 전액 부담했다.

보건의료인 교육으로는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양태호 교수 외 4명의 전문가가 '뇌졸중 및 만성 어지럼증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노인성 신경계질환의 초기환자 이상 유무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병행 실시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 및 합병증 예방을 통해 군민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건강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제7회 김제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10일 낮 12시~4시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놀이 체험장인 '2016년 제7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가 10일 낮 12시부터 4시까지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어울림마당은 총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각종 먹거리 체험, 냅킨아트 손거울, 손반지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오후 1시 30분부터 이어지는 공연마당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을 주제로 특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참여 공연이 펼쳐질 예정으로 금산동아리 금산고 락밴드, 김제동아리 방송댄스, 만경동아리 우쿨렐레 공연등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악기연주, 댄스, 노래등이 이어진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놀이 체험장인 '2016년 제7회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가 10일 낮 12시부터 4시까지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행사마당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당일 관람객을 위한 즉석 장기자랑시간과 공연마당 틈틈이 레크레이션 및 놀이마당을 알차게 기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은 "학업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 수능에 지친 고3 수험생들이 이번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통하여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마음껏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인재양성이 지역의 미래를 만든다"

전북한우협,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은 6일 전북한우협동조합(조합장 김창희)에서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을 방문해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써 달라며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북한우협동조합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정보제공 및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760여 한우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되었다.

전북한우협동조합은 지역의 인재가 경제적 어려움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2007년 500만원의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천만을 기탁하였고, 이외에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우이웃돕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창희 조합장은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건식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까지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인재양성의 소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 연탄나눔봉사

백산면 정 모씨 등 독거노인 3가정에 연탄 1000장 직접 배달

부안해당화로타리클럽은 지난 1일 한전 부안지사 전력노조부안지회 직원들과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에 너지 연탄나눔봉사를 펼쳤다.

이날 해당화로타리클럽회원과 전력노조부안지회 직원들은 외롭게 사시는 독거노인 부안군 백산면에 정모씨(83)세와 부안읍 신운리 독거노인 김모 씨(82) 등 어르신 3가정에 연탄 1000장을 직접 배달하고 전달하고 동지섣달 따뜻한 겨울을 지나시라고 위로했다.

김정남 해당화클럽회장은 "주위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껴 김장봉사와 연탄,생필품을 전해 드리면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신 고맙다는 말씀에 마음이 흐뭇하다"며 손이 닿는 한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보건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위생점검

정읍시보건소가 지난 5일부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45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펼치고 있다.

보건소는 오는 23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 준수 여부 확인과 함께 현장 위생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을 위해 위생관리 팀원으로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는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무허가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진열·보관·비치 여부,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 사행심 조장을 통한 제품 판매 여부,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적합 여부, 허위·과대·표시·광고 여부, 영업장 시설 및 진열대 등 위생 관리 상태를 중점 점검한다.

보건소는 지도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고 영업장 멸실 및 무단 장기 휴업 등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 일제정리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위반업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